

# 세상을 치유하고 가치를 복원하는

## ICT

“지난 20년이 놀라웠다면, 다음 20년은 마치 공상과학과 같을 것입니다.”

미국의 그래픽칩 설계 회사인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2020년 GTC(GPU Technology Conference) 기조연설에서 인류의 기술이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상이나 사기를 북돋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다. 실제로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의 첫 20년 동안의 발전상이 20세기 전체의 발전상보다 급격했고, 이후의 10년 동안 지난 50년보다 더 많은 기술 발전을 겪으리라는 데 동의한다. 사람마다 다르게 진단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술적 특이점의 언저리에 있는지도 모른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지속된 ‘대봉쇄’는 변화를 더 앞당겼다. 급격하게 줄어든 대면 활동, 마비된 장거리 이동과 물류, 지속되는 방역은 산업과 삶에 큰 위기를 초래했으나 사람들은 곧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하고 있다. 그간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온 ICT가 열쇠였다. 공교육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지될 수 있었고, 화상회의와 재택근무는 엄격한 방역 상황에서도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게 했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백신이 개발됐으며, 전산망과 무선 네트워크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방역 현장이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적용된 기술 대부분은 대봉쇄를 맞아 급조된 기술들이 아니다. 모두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였지만 활용할 계기가 마땅치 않아 본격적인 상용화나 보편적인 활용에는 이르지 못하던 것들이다.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2020년 5월 열린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20’에서 2년 걸릴 디지털 전환이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결국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최신 기술이 실생활과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되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우리는, 그리고 세계의 인류는 지난 2년간 디지털 대전환이 사회 전 분야를 어떻게 변화하는지, 일상을 어떻게 복원하는지 경험했다. 그러면서 ICT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화했다. 한때 차갑고 날카로운 첨단기술이라는 인상이 있던 ICT는 손상되어 파편화된 일상을 복원하는 ‘치료제’의 역할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ICT 분야의 연구자와 종사자들이 살피야 할 일과 책임도 늘어났다.

TTA 저널은 200호를 기념하여 변화된 세상에서 ICT와 표준이 나아갈 바를 살펴본다. 변화된 ICT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삶과 사회 전반을 아우르고자 지난 3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ICT Convergence Korea 2022의 주제와 연계하여 Healing, Opportunity, Platform, Environment 네 가지 키워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사람과 사회를 치유하는 의료 및 헬스케어와 국방, 변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핀테크와 블록체인, 메타버스, 드론, 실감형 미디어 등 각종 산업기술, 새로운 세계의 기반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스마트 제조,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스마트 농축수산, 에너지 환경 기술을 각각 분야별로 살펴본다. 200호를 맞은 TTA 저널이 앞으로 또 다른 200호 동안 어떤 이야기를 공유하고 전해야 할지,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